

# 실내건축의 욕망유형을 통한 욕망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

- 라캉의 욕망이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sire Structure through the Desire Type of Interior Architecture

- Focus on the Lacan's Desire-theory -

안은희\* / An, Eun-Hee

이정욱\*\* / Lee, Jung-Wook

## Abstract

'Desire' in this study is not something desire in the used to be-way we can deal with it. This study is to figure out 'desire structure' of interior architecture as a significant measure to interpret the Lacan's desire theory. It is also examines Lacan's concept of desire as defined in the mechanisms of language, in relation to architecture and interior architecture, and in the concept of the objet a(the unattainable object of desire), in the structure of desire as it can be seen in interior architecture. In particular, it analyzed that the desire structure have influenced on some kind of specific desire types what is expressed a characteristic to interior spaces of intimacy, perpetuity, representation, expression. These types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desire structure in inner space of interior architecture through negating and fantasizing. The focus on the structure becomes a major issue in almost many kinds of contemporary knowledge-system that starts from the mind to go out to the space in a material or non-material(spiritual) way. Therefore, the desire structure reconstructs the Real to make itself through negative and fantastic creation-process. It is important that desire characteristics help detect behind beneath the singularity of interior spaces more than what we know.

키워드 : 욕망, 라캉, 욕망유형, 욕망구조, 부정성, 환상, 특이성

Keywords : Desire, Lacan, Desire type, Desire structure, Negativity, Fantasy, Singularity

## 1. 서론

최근 정신분석 이론은 정신의학의 임상적 치료차원을 넘어서 문학적, 문화적, 사회적 텍스트의 비판적 이해와 분석에 적절한 비평이론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자크 라캉(Jacques Lacan)의 '욕망이론'은 소쉬르의 언어학에 근거하여 프로이드의 무의식을 은유와 환유로 읽어낸 구조주의 분석으로써, 이에 대한 다양한 학제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에 들어서서 대중매체의 증가와 소비문화의 범람으로 인해 욕망의 문제는 주체의 문제와 더불어 주요한 지적 동기이자 이론적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건축이나 실내건축 분야에서의 욕망에 대한 탐구 또한 건축적 공간의 생성 및 소비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라캉의 욕망이론을 중심으로 실내건축의 욕망구조를 살펴보고 그 특성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우선 라캉의 욕망이론을 고찰한 후, 건축과 실내건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사고실험해 볼 것이다. 그렇게 도출된 이론적 가능성을 통해서 실내건축의 고유한 욕망 특성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실내건축의 욕망구조를 규정지을 수 있는 특성들을 찾아낼 것이다.

이처럼 라캉의 이론을 건축적 공간에 적용시키는데 있어서 특히 유용한 지점은 라캉의 구조주의가 구조 속에서 구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점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내건축을 구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공간을 구축하는 물성의 구조 외에 도저히 물성으로는 환원되지 않고, 때로는 물적 구조를 교란시키는 내적 구조가 있음을 우리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접하게 된다. 건축적 공간이 단순한 물적 대상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 삶의 감성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다양한 내적 구조를 이해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욕망과 환상은 건축적 공간의 생성조건이자 작동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대한 이해는 건축적 공간의 본질적인 존재기반에 대한 이해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회원,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박사과정, 시간강사

\*\* 부회장,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 2. 욕망 개념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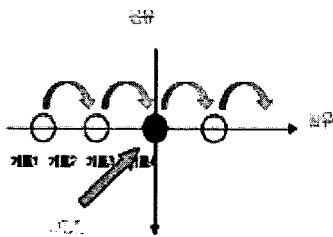
### 2.1. 라캉의 욕망이론

라캉은 1958년경 욕구(besoin/need), 욕망(désir/desire), 요구(demande/ demand)의 세 가지 용어 사이의 중요한 차이를 발전시킨다. 우선 욕구는 인간이 가진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본능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써, 순수한 육체적 생존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생물학적 필요성이다. 유아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언어로 그 욕구를 설명해야 한다. 즉, 유아는 자신의 욕구를 표명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요구'이다. 이때 욕구와 요구의 차이가 발생한다. 유아가 젖을 달라고 요구할 때 유아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 젖만이 아니다. 유아는 어머니의 사랑을 함께 요구한다. 이처럼 요구는 이중의 기능을 갖는데, '욕구를 표명하는 기능'과 '사랑을 요구하는 기능'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이의 완전한 사랑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완전히 부합되게 응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녀 역시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요구로 표명된 욕구가 충족된 후에도 요구의 다른 측면인 사랑을 위한 갈구는 충족되지 않은 채 남게 되고, 이처럼 남은 잔여가 바로 욕망이다. "욕망은 충족을 위한 식욕도 아니고 사랑을 위한 요구도 아니며 요구로부터 욕구를 뺀 차이인 것이다."<sup>1)</sup>

욕구는 특정한 욕구에 부응하는 특정한 대상과 행위를 통해 전적으로 충족된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배가 고플 때 식욕이 충족되면 완전하게 욕구는 사라진다. 그러나 욕망은 결코 충족되지 않는다. 욕망의 실현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욕망을 '재생산해내는' 데에 있다. 라캉은 이때 발생하는 욕망은 주체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이라고 한다.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sup>2)</sup> 이것은 욕망이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욕망의 대상이 되려는 욕망이자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는 욕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sup>3)</sup> 이처럼 욕망은 타자의 욕망

이기에, 주체가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것이라 믿으며 욕망하는 대상을 얻어도 욕망은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남는다. 기표가 완벽한 기의를 갖지 못하고 끝없이 의미를 지연시키는 텅 빈 연쇄고리이듯, 그리하여 기표의 특성이 은유

와 환유이듯, 욕망은 기표이자 은유와 환유이다. 주체의 욕망을 충족시킬 것처럼 보이는 대상, 즉 대체가 가능하리라 믿는 단계가 은유라면, 충족시키지 못하고 다시 다음 대상으로 자리를 바꾸는 단계가 환유이다.



<그림 1> 기표의 은유, 환유 작용 도식

또한 라캉이 인간의 심리행위에 작용하고 영향을 주는 힘의 장(場)을 구분하기 위해 제시한 세 가지 질서(界)의 측면에서 보면, 욕망하는 대상을 실재라고 믿고 다가서는 과정이 상상계(the Imaginary)요, 그 대상을 얻는 과정이 상징계(The Symbolic)요, 여전히 욕망이 남아 그 다음 대상을 찾아나서는 것이 실재계(The Real)이다. 이때 실재라고 믿었던 대상이 대타자이고, 허구화된 대상이 소타자이다. 여기서 'S<math>\diamond</math>a'<sup>4)</sup>라는 욕망의 공식이 나온다.<sup>5)</sup> 결국 라캉의 정신분석학이 구조주의와 구분되는 점은 라캉이 타자의 욕망으로서 인간의 욕망이 형성되는 주체적인 공간을 중시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영역이 바로 'S<math>\diamond</math>a 환상(fantasme/fantasy)'이다.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에 대한 주체적 응답인 무의식적 환상을 통해서 형성된다.

### 2.2.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건축 공간

라캉의 욕망이론에서 욕망이 타자의 욕망이고 환상이 욕망을 실현하는 상상적 시나리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건축은 주체가 타자의 욕망에 기초해 상상적으로 구축하는 환상적 대상물, 즉 욕망의 허구화된 대상이다. 그 까닭은 건축이라는 물적 대상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며 부재하는 것을 찾아내려는 시도를 통해 구축되는 대상이지만, 그러한 시도는 항상 빛나가고 미끄러지기 때문이다. 라캉에 따르면, 언어나 지각에서 스스로를 재현하려는 주체의 모든 시도는 늘 빛나가고 뒤로 남겨진다. 서양건축사의 주요한 쟁점인 객관적인 미(고전미)와 주관적인 미(낭만미)의 논쟁<sup>6)</sup>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건축이 담으려는 모든 욕망의 내용은 어느 시기에서든 완벽하게 부합되지 않고 항상 상대적으로 끊임없이 미끄러진다. 즉, 건축은 무(nothing)를 담은 빈 용기이고, 건축을 통해 얻고자 하는 충족은 무를 유로 가시화하려는 불가능한 시도에 다름 아니다.

1) Jacques Lacan, *Écrits: A Selection*, trans. Alan Sheridan,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1977, p.287

2) Jacques Lacan, *The Seminar. Book XI: The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1964,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Norton, 1998, p.235

3) 김상환·홍준기 엮음, *라캉의 재탄생, 창작과 비평사*, 2005, pp.74~75

4) 'S'는 결핍된 주체 또는 빗금친 주체로써 주체와 기표의 관계를 나타낸다. 'a'는 objet petit a의 줄임말로써 주체로 하여금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허구적 대상이다. 'S<math>\diamond</math>'는 대상이 주체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결핍을 드러내는 상상적 결합이다. 라캉의 수학적 소인 S<math>\diamond</math>a은 '환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타자의 욕망을 실현 또는 상연하는 상상적인 시나리오를 지칭한다. 욕망의 공식이 결국 환상으로 종결되는 이유는 주체는 타자의 욕망의 심연에 직면하여 타자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그 심연을 은폐하기 위해 환상을 만들기 때문이다.

5) 권택영 엮음, 민승기·이미선·권택영 옮김, *자크 라캉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1994, p.19

6) 칸트의 판단력 비판 이후 미를 주관적 미로 규정할 수 있게 되면서 그리스·로마 시대를 필두로 르네상스, 신고전주의와 같이 객관적 미에 근거를 두는 입장과 고딕을 필두로 바로크, 낭만주의와 같이 주관적 미에 근거를 두는 입장이 서로 상반되며 서양건축사의 축을 이루었다.

그러나 건축은 물질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이나 영상매체와 같은 다른 장르에서의 욕망 구조와는 변별되는 지점을 가지고 있다. 욕신의 안식처로써, 권력의 상징으로써, 내적 은밀함을 감추는 표피로써, 영속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을 거스르는 저항의 상징물로써, 그리고 탐미의 대상으로써 건축은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인간 자체를 표상하며 구축되어 왔다. 이처럼 끊임없이 이어져온 건축 욕망의 역사는 이른바 욕망 지연의 역사이고, 이는 건축이 건축물을 통해 주체가 꿈꾸는 그 어떤 욕망도 완벽하게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상기시킬 뿐이다. 건축물은 항상 부재하는 것의 현존 가능성을 꿈꾸게 만드는 빈 구멍으로써 우리 곁을 지키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건축가들은 건축 자체로부터 더더욱 유리되는 방식으로 건축의 빈 구멍을 강화시킨다. 예를 들어 건축의 전통적인 재현도구와는 차이를 가지는 다이어그램이나 프로그램과 같은 비-현존의 도구들이 현대의 많은 건축가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sup>7)</sup> 특히 다이어그램과 같은 ‘비동기적 기호 (unmotivated sign)’는 현존-되기에 초점을 맞추어 비-현존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은 “비동기적 도구이자, 완전함의 가능성에 대한 전통적인 욕망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다이어그램을 이해한다.<sup>8)</sup> 아이젠만에 따르면, 건축적 기호의 비동기적 되기에서 다이어그램은 대리자이고, 형태는 기능과 의미로부터 분리된다. 결국 건축은 디자인 과정으로부터 분리된다. “비동기적 조건을 향해 주체와 대상 모두를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다이어그램은 욕망하는 주체(건축가, 수용자)와 욕망되는 대상 사이의 관계를 흐릿하게 만든다.”<sup>9)</sup> 여기서 비동기적 조건이란 건축이 스스로를 재현할 수 없는 주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스스로를 재현하지 못하고 욕망의 주체와 대상 사이에서 흐릿해지는 건축은 불가능한 욕망의 대상이자 원인인 허구적 대상 ‘a(objet petit a)’ 자체가 되는 것이다.

### 2.3. 실내건축의 욕망 특성

건축을 욕망의 대상으로 볼 때, 실내건축 또한 욕망의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건축과 변별되는 욕망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실내건축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실내건축(Interior Architecture)’라는 용어는 1970년대 초 미국이나 유럽의 소수 진보적인 설계회사들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sup>10)</sup> 실내건축은 건축적인 사고와 연계를 강조하면서 기술과 기능뿐 아니라 고유한 미학적 잠재성을 실내공간을 통해 개척하는 분야이다. 존 커티지(John Kurtich)는 실내건축의 기본 개념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실내/실외(Inside/Outside) : 실내건축은 건물의 구조를 중요하게 여기며, 항상 그 구조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2. 3차원(The Third Dimension) : 3차원 공간은 모양이나 크기, 비

례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완성된다고 인식된다.

3. 4차원(The Fourth Dimension) : 4차원 공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간의 경험을 확장시킴으로써 구성된다.
4. 빛(Light) : 빛은 실내공간을 정의하는 가장 우선적인 매체로 이해된다.
5. 색상과 재질(Color & Material) : 색상과 재질은 실내건축의 인간적인 특징을 결정한다.
6. 장식물(Furnishing) : 장식물은 주문 제작한 요소들과 함께 건축물의 연장으로 이해된다.<sup>11)</sup>

존 커티지의 정의는 주로 실내 공간이 형성되는 조건과 실내 공간을 채우는 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위의 정의에 근거해서 실내건축을 규정해본다면, 실내건축은 건물이라는 구조를 출발점으로 해서 그 내부의 공간을 물질적·비물질적 요소들로 채워가는 작업이다. 건축과 실내건축이 가장 변별되는 지점은 내부와 외부라는 경제적 차이에서 발생한다. 건축이나 실내건축은 기본적으로 각자의 경계의 접점에 위치한 대상들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된다. 그러나 벽이나 구조를 통해 구별되는 실내와 실외라는 물리적 경계만으로는 실내건축적 공간을 규정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한국 전통건축의 마당은 실외이지만 주택 내부로 들어온 실외 공간이다. 그렇다면 공간의 경계를 규정할 때 물리적 경계 이외에 심리적 또는 문화적 경계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에드워드 홀(Edward T. Hall)에 의하면, 건물들은 고정된 공간 유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특색 있는 방법으로 그룹지어 있을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결정된 디자인에 따라 내부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한다.<sup>12)</sup> 내부 공간을 결정하는 방법은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문화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여 왔다.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좌우되기 때문에, 고정 공간을 인식하는 것도 어느 정도 관찰자의 기억이나 심리상태에 의존하게 된다.<sup>13)</sup> 이처럼 실내건축은 물질적인 요소들 외에도 문화적·심리적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실내건축은 인간의 물질적·비물질적 삶이 담기는 용기으로써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7) 다이어그램과 프로그램은 현대 건축가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피터 아이젠만은 다이어그램과 프로그램을 인간의 머릿속에서 건축 형태를 자동적으로 만들어내는 추상적인 생성 규칙으로 간주하고 있고, MVRDV나 UN Studio는 건축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제적인 힘들을 배열하는 시각적인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니컬러스 니그로폰테, 다니엘 리베스킨트, 존 프레이저 같은 건축가들은 건축 설계를 자동으로 생성시키는 기계로 받아들여서 그것들 직접 제작하기도 한다. 정인하, 현대건축과 비표상, 아카넷, 2006, pp.181~182

8) Peter Eisenman, Diagram Diaries, Universe, 1999, p.214

9) Ibid., p.214

10) John Kurtich & Garret Eakin, Interior Architecture, 실내건축의 역사, 김주연·서수경·이성훈 역, 시공아트, 2005, p.13

11) Ibid., p.14

12) Edward T. Hall, The Hidden Dimension, Anchor Books, 1969, p.103

13) Joy Monice Malnar & Frank Vodvarka, The Interior Dimension, 인테리 디멘션, 박영순·이현수 역, 디자인하우스, 1996, p.345

건축의 욕망구조가 구축 메커니즘 속에서 환상적 대상으로 건축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욕망을 표상하는 은유를 통해 주로 작동하고 있다면, 실내건축의 욕망구조는 다양한 인간의 행태를 담아야하는 섬세한 실내공간의 특성상 인간 욕망을 충족·지연시키는 환유를 통해 주로 작동하고 있다. 실내공간을 채우는 빛, 색채, 재질, 장식물과 같은 요소들은 건축물이 제공하는 기본 욕구를 넘어선 욕망의 대상들이다. 현대의 실내건축은 건축적 쉼터의 개념과 같은 기능을 넘어선, 즉 욕구 이상의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 건축물이 주는 것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욕망의 찌꺼기가 계속해서 이리저리한 실내공간을 요구해왔고 디자인되어 왔다. 이것이 우리가 실내건축에서 가지게 되는 욕망이고, 그러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공간적 환상을 환상적 공간으로 치환한다. 또한 그 공간을 사용하는 수용자들은 환상적 공간을 자신의 환상으로 치환하여 공간을 전용한다.

이와 같은 실내건축의 욕망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내건축에서 생성되는 욕망을 유형별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건축물이라는 동일한 토대 위에서 건축과 실내건축이 함께 시작되지만, 실내건축은 내부라는 공간에 한정됨으로 인해 건축과는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욕망 패턴들을 가지게 된다. 실내건축의 욕망유형은 ‘요구-욕구=욕망’이라는 라캉의 욕망 도식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 실내건축에서 다루게 되는 영역을 공간, 시간, 상징, 미라는 4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실내건축적 요구와 욕구를 규명하고, 요구에서 욕구를 빼고도 남는 부분을 욕망이라고 볼 때, 실내건축은 내밀해 질 것, 영속적인 공간이 될 것, 공간을 통해 욕망을 표상할 수 있어야 할 것, 그리고 미적인 것들을 표현해야 할 것 등의 특수성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실내건축의 욕망유형을 내밀성, 영속성, 표상성, 표현성으로 도출할 수 있다.

<표 1> 실내건축의 욕망유형 도출 도식 (요구-욕구=욕망)

분류	요구	욕구	욕망
공간적 측면	기능 + a	기능을 담는 내부 공간	a = 내밀성
시간적 측면	시간 + a	시간을 건디는 물적 공간	a = 영속성
상징적 측면	의미 + a	의미를 표상하는 상징 공간	a = 표상성
미적 측면	미 + a	미를 표현하는 미적 공간	a = 표현성

### 3. 실내건축의 욕망유형

#### 3.1. 내밀성

실내건축의 공간적 측면에서의 요구는 내부공간이라는 기능을 담아야한다는 것으로, 단순히 기능을 해결했다고 해서 공간적 요구가 충족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내부라는 공간적 기능

의 충족 이후에도 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밀한 욕망이다.

실내건축을 규정하는 첫 번째 요소인 실외와 실내라는 경계의 문제에서 내부를 향한 욕망인 내밀함의 욕망은 시작된다. 인간은 원초적 내부인 자궁에서부터 공간의 내밀함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고, 자궁 밖에서조차 그 내밀함을 욕망하며 인위적으로라도 내부를 형성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게 된다. 내부와 외부는 경계 지음 이전에는 동질적인 속성을 가진 공간이었지만 경계가 형성됨으로 인해 서로 다른 이질적인 대상으로 분리되고, 이때 내부와 외부는 공간적 차이를 가지게 된다.

내밀성(intimacy)이란 드러나지 않는 것, 자신만의 고유한 것, 따라서 자신의 내면에 속한 것이다.<sup>14)</sup> 실내건축은 건축의 내면에 속한 것으로써 속성상 공간적인 내밀성을 가진다. 내밀함을 기준으로 할 때의 공간의 구분, 특히 안과 밖이라는 경계를 중심으로 공간을 분류할 때, 도시의 내부로써의 건축, 건축의 내부로써의 실내건축, 실내의 내부로써의 자아에 이르기까지 내밀성은 항상 근접해 있는 공간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대적인 공간 개념이다. 이러한 상대성 속에서도 인간이 지속적으로 공간의 내밀함을 지향하게 되는 이유는 외부 공간의 낯선 두려움으로부터 내부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공간을 전유(appropriation)하여 안정감을 취하려는 욕망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의 심리적 현상을 환경심리학에서는 ‘영역보존’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영역은 한 명 또는 더 많은 개인들에 의해 통제되거나 소유되는 장소이다.’<sup>15)</sup> 또한 카스턴 해리스(Kastern Harris)에 따르면, ‘건축은 공간을 길들이는 것이며 공간(space)으로부터 살만한 장소(place)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sup>16)</sup> 이처럼 인간은 공간을 구축하는 행위, 즉 공간을 전유·지배하는 행위를 통해 심리적·환경적·공간적 안정감을 구축한다. 스페이스에서 플레이스로의 전환, 즉 건축행위란 공간을 전유하고 지배하여 사회적, 물리적 공간을 개인적, 심리적 영역으로 전환하려는 공간 실천의 일환인 것이다.

궁극적으로 인간이 행하는 일련의 공간 실천은 상대적 공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다. 예를 들어, 인간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영토—그것이 우주와 같은 미지의 영역일지라도—를 정복하고, 지도를 제작하고, 행정적 공간을 구축하는 등의 공간적 실천을 통해서 이질적인 공간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을 최소화한다. 즉, 인간은 외부라는 인지 밖의 영역과 내부라는 인지 내의 영역 사이에서 벌어지는 충돌과 괴리감을 최소화하여 외부를 내부화하려는 공간 실천을 끊임없이 되풀이한다.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이와 같은 거리

14)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소명출판, 2000, p.231

15)J. D. Fisher, P. A. Bell & A. Baum, Environmental Psychology, 환경심리학, 차재호 감수/ 이진환·홍기원·정영숙 공역, 학지사, 1997, pp.280~281

16)K. Harries, Building and the terror of time, Perspecta: the Yale Architectural Journal 19, 1982, pp.59~69

마찰이라는 작용이 공간의 지배와 전유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7)</sup> 하비는 이야기하는 '거리마찰'이 최소노력의 원리와 재화적 속성, 즉 거리를 극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의 문제에서 제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외부공간의 이질감을 최소한의 노력으로 내부화하려는 인간 욕망의 속성, 즉 시공간을 압축하여 내밀한 영역으로 귀속시키려는 욕망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하비는 시공간의 압축을 통한 내밀화를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분류한다. 하나는 철학적, 사회적 사유에서 플라주나 분절화, 분산을 강조하는 유연적 축적을 통한 시공간의 압축으로써 하비가 표현하듯이, 모든 상이한 가능성들을 활용하고 일련의 모든 시물라크르를 도피, 환상, 기본 전환의 환경으로 개발하는 경향이다. 다른 하나는 정반대의 경향이다. 즉,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것, 또는 부유하는 세계에서 안정적인 정착지를 찾고자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하비는 중첩된 공간적 이미지들의 콜라주 속에서 구축되는 '장소정체성(place-identity)'이라고 명명한다. 인간은 누구든지 개인화된 공간(신체, 방, 가정, 유형의 공동체, 국가)을 점유하고 스스로를 개인화하는 방식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이다.<sup>1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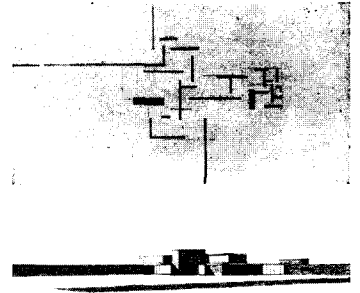
이와 같은 건축의 내부공간을 통한 내밀함의 추구라는 인간의 원초적 욕망은 시공간의 압축을 통해서 건축 내부로 밀착해 들어오지만, 그러나 내밀할 것이라는 환상, 경계의 안과 밖이 확실하게 구분될 것이라는 절대성의 환상은 내부의 균열된 틈으로 인해 분열되고 외부화 된다. 때로는 분열된 존재로써 공간 속에서 도피와 환상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때로는 안정적인 정착지를 구축하려하는 이중적인 성향을 가진다할지라도, 그리고 내밀함이 지속적으로 균열되어 그 균열의 틈을 지속적으로 메워야할지라도 인간은 실내건축이 제공하는 포근한 내밀함의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끝없이 반복적으로 내부공간을 형성할 것이다.

### 3.2. 영속성

실내건축은 공간적 속성 외에도 시간적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공간의 구축은 시간의 구축을 담보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실내건축이라는 물적 공간은 시간이 담보됨으로써 지속될 수 있는 내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물적 공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 한계로 인해 실내건축은 또한 영속성을 욕망하게 된다.

건축적으로 볼 때, 영속성은 건축이 구축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 중 하나였다. 바벨탑, 피라미드, 고딕 성당, 뉴턴 기념관, 그리고 현대적인 고층 빌딩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건축은 간결한 추상적 형상을 통해 영원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공간을 구축해왔다. 실내건축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이 있다. 고딕 성당의 내부는 강한 수직축을 통해 종교적 영속을 약속했고, 미스의

<벽돌 전원주택 계획안 (1923년)>에서 보이는 끝없이 연장된 수평선은 현대건축이 열망한 비대상성, 즉 물리적인 요소를 통해 물리적인 공허를 만들어 내려는 욕망의 표현이었다. 실재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인지되는 실재하지 않는 공간을



<그림 2> 미스, 벽돌 전원주택 계획안, 1923

구축하고자하는 건축가들의 꿈은 결국 실재하지 않기에 영원해져 버리는 공간에 대한 열망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찰나적 사건, 이미지들이 현실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경험하지 않아도 경험하게 되는 스펙터클<sup>19)</sup>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영원보다는 찰나가 더욱 익숙하다. 대부분의 현대 디자이너들은 건축물이나 실내공간이 영구적이길 원하기보다는 현대의 시물라크르적인 이미지들을 담아내길 원한다. 폴 비릴리오(Paul Virilio)는 오늘날 건축가의 당면한 문제는 질량(mass)과 에너지, 그리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차원으로서 유동적인 물질을 함께 다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귀스타브 플라베르(Gustave Flaubert)의 문장을 인용한다. “이미지는 그 이미지의 실제 대상보다 더 중요하다”<sup>20)</sup> 이처럼 오늘날 공간 디자인은 영속성보다는 시물라크르와 같은 이미지 또는 찰나적 사건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물라크르’와 ‘송고’가 현대미학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속성을 보여주듯, 현대 실내공간에서의 ‘찰나’와 ‘영원’이라는 속성 또한 상호간에 분리되지 않는 유기적 특성을 띠기도 한다.

컴퓨터가 만들어낸 사이버스페이스는 현실공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찰나적이고 가상적이다. 일반적으로 사이버스페이스는 현실세계의 가상적 재현이라는 실재와 재현의 이원론적인 전통에서 존재한다. 그러나 사이버스페이스는 현실공간과는 별개의 존재론적 가치 또한 함의하고 있다. 사이버스페이스는 가상적 잠재성(virtuality)<sup>21)</sup>의 공간으로써 존재한다. 사이버

17) David Harvey, The condition of postmodernism,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구동회·박영민 역, 한울, 2000, pp.261~263. 데이비드 하비는 '거리'는 인간 상호작용에 대한 장벽인 동시에 보호막'이라고 정의하면서, '거리의 마찰'을 통해서 공간적 실천을 설명하고 있다. 하비는 공간적 실천을 접근성과 거리화(accessibility and distanciation), 공간의 전유(appropriation of space), 공간의 지배(domination of space), 공간의 생산(production of space)의 네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18) Ibid., p.352 참조

19) Guy Debord, Society of the spectacle, 스펙터클의 사회, 이경숙 역, 현실문화연구, 1996. 기보르는 현대사회를 전문화된 다양한 매개체들에 의존해서 바라보게 하는 경향이 강한 스펙터클의 사회로 보았다.

20) Paul Virilio, Architecture in the Age of Its Virtual Disappearance, The Virtual Dimension, John Beckmannes,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8, p.180

21) '버추얼리티(virtuality)'이라는 단어는 철학에서는 주로 '가상성'보다는 '잠재성'으로 해석되는데, '가능성(possibility)'과는 구분된다. 잠재성은

스페이스의 비물질적이고 일시적인 가상성은 오히려 현실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공간으로써의 가능성을 부여한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시공간은 찰나적인 동시에 영속적이다. 사이버스페이스의 구조적 특성인 하이퍼텍스트의 비선형적이고 무경계적이며 상호작용적이며 다매체적인 특성 속에서 시공간은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언제 어디서든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링크를 통해 무한히 연결되는 노드는 찰나와 영속이라는 이질적 시공간개념을 통일된 속성으로 인지하게 만든다. 또한 원본과 복사본이 구별되지 않는 '복제'의 무한성 또한 사이버스페이스의 시공간을 영속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진정성의 논란을 무위시키는 새로운 시공간으로써 변종적인 영속성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공간에서 초월을 꿈꾸던 영속적 욕망은 과거의 건축적 속성만으로 귀착되지 않고, 현대에 들어서서도 사이버스페이스와 같은 가상적 공간을 중심으로 변이적인 성격을 가지며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3. 표상성

언어에서 기표들의 연속이 어떤 의미를 생산해내듯이, 실내건축에서 형태라는 기표들의 연속은 일정한 의미를 표상한다. 실내건축은 의미를 표상하는 상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내건축적 요구는 상징적 공간에서조차 의미를 고정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충족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표상하고자 하는 욕망의 찌꺼기를 남긴다. 실내건축의 의미작용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은유와 환유의 작용을 통해 고정점을 획득하려는 욕망이 바로 표상성 유형이다.

철학이나 예술에서 '표상(representation)'<sup>22)</sup>의 문제는 다양한 의미론적 층층성을 가진 문제이다. 인간은 표상활동을 하는 존재로서 세계를 자기 앞의 그림으로 세우면서 세계의 근거가 되었다. 인간은 수많은 다양한 존재자(多者)를 자기라는 하나의 지평(一者) 위에 그러모을 수 있는 존재이다.<sup>23)</sup> 이처럼 인간은 표상을 통해 타자라는 존재자의 차이들을 자아의 동일성으로 귀속시키려는 욕망을 가진 존재이다. 결국 무엇인가를 표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자기 동일화(identification)한다는 의미와 같다. 실내건축에서도 표상하려는 대상과 표상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는 실내건축의 동일성/정체성(identity)을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현대에 들어서서 불일치되고 동일화되지 못하는 표상 개념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움직임이 철학이나 예술, 건축 분야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명 '비-표상(non-representation)' 개념인데, 비표상은 문자 그대로 표상하지 않거나 재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를 규정지었던 거대담론들이 붕괴된 이후 후기 구조주의 철학을 중심으로 주체와 표상 개념이 폐기되는 데, 표상이 동일성을 바탕으로 구축된 것이라면, 비표상은 세계

의 표상 가능성을 부정한 상태에서 차이가 동일성에 포섭되지 않는 생성적 차이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개념이다.<sup>24)</sup>

이와 같은 비표상 개념은 현대 건축가들의 작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표상 건축을 주장하는 건축가들은 더 이상 인간, 자연, 기계처럼 건축 외부의 무엇인가를 표상하려하지 않고, 대신 계속해서 차이를 생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sup>25)</sup> 그들에게 건축은 자율적 형식 체계로써, 그들은 자기 지시성, 텍스트, 랜드스케이프, 주름, 기계, 다이어그램 등의 개념을 동원하여 건축의 자율적인 생성 원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려 한다.<sup>26)</sup>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방식 역시 건축의 '자율성'이라는 또 다른 존재론적 함의를 가진 건축적 이데아를 이미 표상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비표상을 지향하지만 결국 또 다른 표상을 표상하게 되는 공간 디자인의 사례 중 하나로 살라와 라베(Serge Salat & Françoise Labbé)가 디자인한 '윤회하는 입방체(Vanishing Cubes)'를 들 수 있다.<sup>27)</sup> 이 작품은 프렉탈 기하학의 건축 공간적 표현으로써, 르네상스식의 투시도적 재현 공간을 해체하고 들뢰즈의 '주름' 이론을 바탕으로 후기구조주의 사회의 새로운 예술적 패러다임인 '무한성'과 '복잡성'을 표현하려 했다. 이 작품의 전시 공간에서 관찰자의 위치는 '시선과 주시되는 대상 사이의 관계가 점점 더 어지럽게 진행됨에 따라 끊임없이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계획되었다.<sup>28)</sup> 문제는 이러한 재귀적 반복 구조로 인해 그들이 해체하려고 했던 르네상스식 투시도의 입방체적 그리드에서 결국은 벗어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 작품에서 '점증하는 차원과 복잡성을 띠는 공간 속으로',<sup>29)</sup> 즉 3차원을

현실적인(actual) 존재는 아니지만, 엄연히 잠재(潛)해 있는 존재이다. 그 점에서 실재한다(real). 가능성의 외연은 훨씬 넓다. 가능성은 인간이 상상가능한 모든 것이다. 가능성이란 인간-주관의 잠재성이다. 잠재적인 것들은 실제적인 것들이며, 발견되거나 자연발생적으로 현실화된다. 가능한 것들은 실제하지 않는 것들이며,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어떤 부분들이 실제화된다(realize). 이정우, 철학이란 무엇인가, 2003 겨울 철학아카데미 강의록

22)표상(表象)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representation', 프랑스어의 'représentation', 그리고 독일어의 'vorstellen'을 번역한 것으로, 현재 표상 외에도 '재현(再現)'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주로 표상은 인식론이나 철학적 논의에서 사용되고 있고, 재현은 예술이나 문화이론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굳이 표상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철학적 논의에 조금 더 연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23)서동욱, 차이와 타자, 문학과 지성사, 2003, p.9

24)비표상적 사유에서 주로 모색되는 핵심적인 것들은 우선 표상될 수 없는 것으로부터의 자극을 통한 사유의 수동적 발생, 즉 '사유의 익명성' 문제와 세계란 처음부터 표상 활동의 동일성에 종속될 수 없는 파편적 조각들의 모음일 수도 있다는 '동일성의 부재'의 문제이다. Ibid., p.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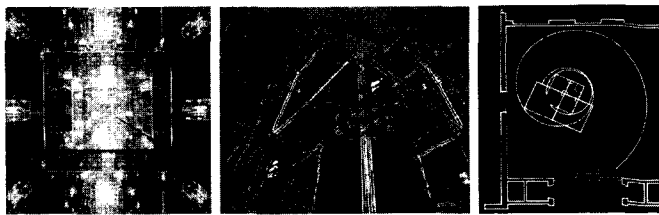
25)정인하, 현대건축과 비표상, 아카넷, 2006, p.12

26)Ibid., 2006, p.13

27)이 작품의 불어 원제는 '입방체의 변신(Metamorphose de Cube)'으로써, 파리의 폼피두 센터와 밀라노 트리엔날레(XVIII Milan Triennale), 도쿄를 거쳐 1992년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되었던 작품이다. 봉일범, 잠재성의 차원, 시공사, 2005, pp.122~130 참조

28)Serge Salat & Françoise Labbé, Vanishing Cubes 윤회하는 입방체, 정은미 역, Seoul Arts Center, 1992

넘어서는 공간 속으로 공간을 투사하는 장치인 거울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작가들의 주장대로 윤희하는 입방체의 가상공간(virtual space)이 4차원을 투영하는 3차원 공간으로써 긴장 상태 속에서 3차원과 4차원을 떠다니는 간(間, 사이)차원성에 속한다고 할지라도,<sup>30)</sup> 살라와 라베가 만든 공간은 1, 2, 3차원에서 일어나는 유사 조작들로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가정된 공간일 뿐이다. 그들이 디자인한 공간은 결국 가상을 보여주기 위해 동원된 일종의 표상 공간일 뿐이다. 그들이 거울을 통해 표현하려 했던 비표상적 개념들은 결국 거울 속으로 사라지고, 남아있는 공간들은 여전히 물리적 공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상 공간으로 존재할 뿐이다.



<그림 3> Serge Salat & Francoise Labbé, Metamorphose de Cube

결국 공간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공간 디자인을 통해 표상할 수 있다고 가정되는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와 동일하다. 디자인이라는 행위는 디자인하려는 대상을 표상 작용에 내재되어 있는 동일성의 논리 내부로 끝없이 재귀하게 만드는 행위이다. 그것이 비표상을 지향한다고 할지라도, 디자인 또는 구축 작업은 공간 속에서 공간을 통해서 공간을 표상하려는 인간의 욕망 속에서 끝없이 되풀이 되는 강박적인 행위에 다름 아니다.

### 3.4. 표현성

실내건축은 공간을 통해 기능을 해결하고, 시간성을 담고, 형태를 통해 의미를 표상하는 것 외에도 미적인 측면이 충족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실내건축에서 미적 요구는 미 개념의 상대성으로 인해 미에 대한 합의를 못하고 지속적인 미의 표현만 되풀이하게 된다. 특히, 현대에 들어서서 미의 상대적인 측면이 더욱 부각되면서, 실내건축에서는 미에 대한 '합의'보다는 미로 추정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표현'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결국 미적 요구는 '미'라는 목적어는 생략한 채 '표현'이라는 서술어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이는 '미+a'라는 요구에서 '미'가 빠지고 남게 되는 'a', 즉 '표현'이 이런 측면에서 실내건축의 욕망 유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현(expression)'은 '표상/재현(representation)'과 더불어 예술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주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표현에 중심을 둔 '표현주의(expressionism)'와 같은 사조의 예술적 경향은 객관적 사실보다는 사물이나 사건에 의해 야기되는 주관적인 감정과 반응에 주목한다. 이러한 예술은 예술가의 내부

를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외부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과 구별된다.<sup>31)</sup> 내밀성이 주로 외부에서 내부로 시선을 돌리는 욕망유형이라면 표현성은 내부에서 외부로 표출되는 유형이다. 표현성이 실내건축의 욕망유형이 될 수 있는 이유 또한 실내에서 실외로 또는 주체라는 내부에서 공간이라는 외부로 향하는 시선이 내밀한 시선과 함께 공존하기 때문이다.

표현성이 외부 대상 없이, 즉 모방(imitation)하지 않고 순전히 주체의 내부를 표현하려는 욕망이라는 점에서 실내건축의 표현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다. 첫 번째로, 경험(외부에 대한 모방) 없이 순수한 내부의 정신(순수 관념상)이 존재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서,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 된다. 즉, 작품 원상의 초월성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적 문제가 내포된다. 실내건축에서 이와 같은 문제는 주로 공간을 생성하는 주체의 내적 표현 문제로 초점이 맞춰진다. 공간 디자이너들에게 디자인의 원상/이데아는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디자이너들이 꿈꾸게 되는 공간적 이데아라는 욕망은 왜 발생하고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 질문하게 된다. 두 번째로, 표현성에서는 모방에 반하는 반모방 개념이 중요해지는데 이로 인해 상상력이 강조되거나 정상적인 것이 거부되는 등 과감한 가치전도와 자의적인 왜곡과 과장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측면은 실내건축에서도 미적 판단의 주관성 문제를 중요하게 부각시킨다.

먼저 원상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디자이너들의 공간적 이데아를 예를 들어 살펴본다면, 근대건축은 순수한 형태에 대한 욕망을 품었고, 기하학적인 환상 위에서 반듯한 형태들을 생산해냈다. 그러나 현실 공간에서 완벽한 수직 수평의 기하학적 형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건축가들의 내적 이데아는 실제 공간에서 표현되었으나 표현되지 못하거나, 표현될 수 없었지만 표현되는 등 원상과 모상은 결코 완벽하게 일치되지 못하고 미끄러지며 욕망의 환유 작용을 되풀이한다. 볼 수 없는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인 것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이러한 표현성의 특성은 '아는 것/느끼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을 규정하고 제한해버리는 욕망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칸트 이후 미(객관)에서 미적 판단(주관)으로 미적 범주가 확장되면서 현대 예술에서는 미와 숭고, 미와 추가 함께 공존하게 되었다. 실내건축에서도 미(형태)와 선(기능)을 동일시하며 굿디자인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근대처럼 균질적이고 기능적인 공간이 우선인지, (탈)현대처럼 비균질적이고 상대적인 공간이 우선시되는지에 따라 판단은 유보될 수 있다. 또한 같은 공간일지라도 수용자의 심적 판단에 따라 공간은 전혀 다르게 전

29)봉일범, Op cit., 2005, p.125

30)Ibid., p.129

31)인상주의나 전통적인 사실주의 계열의 예술과는 그 출발과 대상에서 대립된다.

용될 수 있다.

이처럼 실내에서 무엇인가를 표현하려는 욕망은 다양한 존재론적, 인식론적 지형을 드러내는데, 이 지형은 주로 환상과 닿아 있다. 주체의 내적 원상이 존재할 것이라는 환상, 그 원상을 실제 공간에서 표현할 수 있다는 환상, 그렇게 표현된 공간이 의도를 벗어나지 않고 수용될 것이라는 환상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환상이라는 점에서 이미 표현성은 주체의 결핍을 드러내고 욕망의 작동 원리를 가시화한다.

#### 4. 실내건축 욕망구조의 특성

실내건축의 욕망유형인 내밀성, 영속성, 표상성, 표현성을 통해 실내건축의 욕망구조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욕망유형에서 보이는 구체적인 공간 유형과 공간생성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 이유는 공간의 생성을 조건 짓는 공간의 구조적 측면을 통해 실내건축적 욕망구조의 내적 특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에 아래의 <표 2>는 실내건축의 욕망유형에서 두드러지는 욕망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2> 실내건축 욕망유형의 욕망특성

욕망유형	공간유형	공간생성 특성	욕망특성
내밀성	1) 내밀한 공간 2) 통제되는 공간 3) 해체된 장소/정체성을 가지는 장소	1) 내밀하면서 내밀하지 않은 공간 생성 2) 통제되면서 통제되지 않는 공간 생성 3) 해체-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공간 생성	· 자기부정 · 모호
영속성	1) 기념비적 공간 2) 사이버스페이스	1) 물질 공간의 찰나성 2) 비물질 공간의 영속성	· 자기부정 · 모순
표상성	1) 표상적 공간 2) 비표상적 공간	1) 표상 공간의 표상 불가능성 2) 비표상 공간의 표상성	· 불가능성 · 자기부정
표현성	1) 표현주의적 공간 2) 반모방적 공간	1) 내적 표현에 대한 판단기준의 모호성 2) 순수한 창조 불가능성	· 모호 · 불가능성

##### 4.1. 부정성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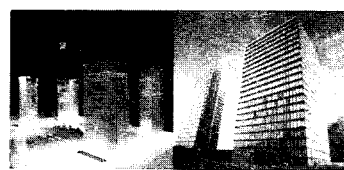
<표 2>에서 실내건축의 욕망 특성은 주로 자기부정, 모호, 불가능성 등과 같은 부정적 특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실내건축의 욕망구조가 부정성(否定性, negativity)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실내건축 공간에서 내적 욕망유형이 부정성의 구조를 띄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욕망의 환유적 특성 때문이다.

욕망은 일종의 공허한 제스처를 반복하는데, 이는 강요된 선택구조를 만들고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일종의 허위 개방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내밀성을 욕망하면서도 동시에 내밀하지 않음을 함께 욕망한다는 것은 내밀함이라는 선택 가능한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전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욕망이 충족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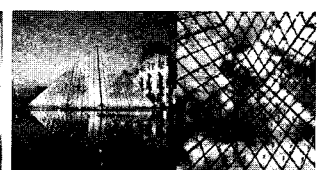
망을 재생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볼 때, 욕망은 실패할 것이 기대되는 동일한 제스처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다시 욕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개연성의 구조를 띄고 있다. 이때 이러한 개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론이 바로 부정성이다.

철학이나 예술에서 부정성은 동일성에 의해 규정되는 체계에 대한 역설적 상호 지시 관계를 가지며 총체적 연관에 사로잡혀 있는 기존의 지배체제를 부정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아도르노(Theodor W. Adorno)는 “사회가 부정성을 산출하면 할수록 예술적 세계도 그에 대해 더욱더 부정적이 된다. 확연한 부정성 없이 예술작품에서 진리내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32)</sup> 부정의 끝없는 과정을 통해서 기존 세계의 완강한 자기보존의 강제적 틀을 깨뜨리는 능력이 예술에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부정의 구조는 동일성의 구조에 균열을 일으키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라캉의 욕망이론에서 부정성은 오히려 전복과 저항을 설정해야 한다는 작위성의 문제로써, 이항 대립 구조가 가지는 봉쇄적 성격으로 두드러진다.

실내건축에서 작위적이고 봉쇄적인 부정성의 특성이 두드러지는 예로써 ‘투명성(transparence)’에 대한 논의를 들 수 있다. 투명성은 근대뿐 아니라 현대에 이르기까지 실외와 실내의 공간적 차이를 동질화시킬 수 있다는 대표적인 공간적 환상이다. 안토니 비들러(Anthony Vidler)는 모더니티의 투명성의 신화가 거주라는 고대 예술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 아니라, 불투명성, 즉 낯선 두려움(uncanny)을 드러내는 신호탄이라고 보았다.<sup>33)</sup> 절대적인 투명성에는 정반대의 속성인 불투명성이 내재되어 있다. 투명성은 너무도 쉽게 불투명함이나 반사의 성질로 변하기에 문자그대로의 투명성은 신화, 즉 환상일수 밖에 없다. 우리가 아무리 투명하다고 할지라도 그리하여 시각적으로는 하나의 공간으로 인지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경계면을 형성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투명한 베일을 쓴 스크린일 뿐이다. 비들러는 도미니크 페로(Dominique Perrault)의 ‘파리 국립도서관’과 아이 엠 페이(I. M. Pei)의 ‘루브르 박물관 피라미드’의 두 사례가 모두 프랑스의 국가적 프로젝트를 상기시키면서, 이 프로젝트들의 규모와 성격을 볼 때 투명성이 ‘새로운 기념비’라는 정확한 효과를 상정하고 사용되었다고 보았다. 국가라는 무게와 부피를



<그림 4> 도미니크 페로, 프랑스 국립 도서관 (왼쪽그림: 초기 계획 모형)



<그림 5> 아이 엠 페이, 루브르 박물관 증축 피라미드

32) 문병호, 아도르노의 사회이론과 예술이론, 문학과 지성사, 1993, p.152



표현하면서도 실제로는 문자 그대로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 낯선 개념의 공적인 기념비성을 의도했다는 것이다.<sup>34)</sup>

여기서 투명성은 기념비성과 등가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투명성이 내포하고 있던 차이를 환원시키는 동질성의 욕망과 같은 맥락에서의 발현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간에서 투명성에 대한 욕망은 경계적 속성과 물성에 저항해야한다는 자위적인 부정성과, 투명성과 기념비성이라는 대립 구조 속에서 다시 동질성으로 귀속되는 봉쇄적인 부정성을 반복하며 유지되고 있다.

## 4.2. 환상 메커니즘

라캉의 욕망이론은 주체가 타자의 욕망을 인지하고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구축하는 오인의 시나리오, 즉 '환상 S(a)'으로 귀결된다. 환상의 기능은 대타자의 불완전성을 은폐하고 주체로 하여금 상징적 질서를 의미 있고 일관된 것으로 경험하게 하는데 있다. 실내건축에서도 욕망의 작동은 환상적 공간이라는 스크린을 통해 공간적 환상이라는 오인의 시나리오를 은폐하고 실내건축을 완결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실내건축에서 담으려했던 내밀성, 영속성, 표상성, 표현성과 같은 욕망이라는 리얼리티는 공간이라는 실재를 지워버리고 오히려 공간을 통해 도달하려는 욕망의 경로와 수단들과만 마주치게 함으로써 공간적 환상을 전경화한다. '실재'라는 것에 대한 공간적 해석은 단지 외적 리얼리티를 왜곡시키거나 변형시킬 수 있다는 상대성을 드러내게 될 뿐이다. 실내건축에서 욕망의 실현이라는 리얼리티에 대한 강박적 반복은 결국 불가능성을 극화하고 무를 인식하게 만드는 기호론적 과잉과 의미론적 공허를 재현하는 환상의 메커니즘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환상의 메커니즘은 근대 건축의 공간 개념에서 두드러진다. 근대 건축은 내부라는 '이름 없는 공간'을 시각화하고, 외부라는 '공간 없는 이름'을 명명하며 건축의 동일성이라는 '무'를 끊임없이 전경화하려고 시도해왔다. 근대 건축가들이 꿈꾸었던 '건축'이라는 기호 속의 건축은 고정되고 절대적인 리얼리티를 벗어나며 지속적으로 텅 빈 발화만 되풀이하였다. 인간이 건축 단위를 결정한다는 르 꼬르뷔제의 '모듈러(modulor)' 개념과 같이 인간중심으로 건축을 시각화하려했던 근대건축의 건축적 꿈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에게 비인간적 건축으로 비판받게 되고, 건축에 절대적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었던 미스 반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의 '구조적 진실'에 대한 탐구는 건축에 작용하는 중력을 표현한 것으로써 건축 외부에 시선을 돌리게 했지만 결국 건축 외부의 표상 대신에 스스로를 지시하는 자율적 형식 체계로 건축을 인식해야한다는 자각을 일깨웠다. 굳이 근대 건축 뿐 아니라 현대 건축 또한 끊임없이 건축과 건축 아닌 것들을 시각화하고 명명하지만, 건축은 여전히 완결

된 무엇으로 정의되지 못하고 완결될 수 없는 무엇으로 간주될 뿐이다. 기디온(S. Giedion)이 모던적인 공간 개념이라는 보편적 이름 아래 건축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을 때의 보편이라는 공간적 동일성은 오늘날에서는 이미 불가능해졌다. 환상만이 이처럼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빈 공간을 채우고 그 공허를 은폐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상 환상이라는 공간적 스크린은 숨길 것이 없음을 숨길 뿐이다. 즉, 건축이나 실내건축의 결핍을 감추는 동시에 그 결핍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건축 분야에서의 환상에 대한 탐색은 건축물이라는 기표를 통해 일어나는 소외와 분리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 즉 대타자의 욕망의 대상으로 전략해버리지 않고 건축이 진정으로 욕망하는 바를 진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을 것으로 보인다.

## 5. 결론

실내건축의 내밀성, 영속성, 표상성, 표현성과 같은 욕망유형에서 두드러지는 실내건축 욕망구조의 내적 특성이 부정성과 환상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부분은 부정성이 부정적이지 않고, 환상성이 환상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특히 여기서 환상적 공간이 환상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란, 환상은 언제든지 깨어져서 새로운 환상으로 대체되거나 횡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공간적 환상은 상징적 질서와의 조율을 통해, 즉 상징적 질서와의 동일화를 통해 환상적 공간으로 구축되지만, 공간적 환상과 환상적 공간의 불일치를 발견하는 순간, 또는 상징적 질서가 조그마한 변수에도 달라질 수 있다는 상징계의 결핍을 발견하는 순간 이미 구축되어진 환상적 공간은 더 이상 환상적인 공간으로 남아 있지 못한다. 결국 환상적 공간은 다른 환상적 공간으로 끊임없이 대체된다. 이처럼 불일치와 미끄러짐을 일으키며 상징계 내부에서 상징적 질서를 교란시켜 상징계의 논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라캉은 실재계라고 부르고 있다. 실재계는 상상계와 상징계의 사이 또는 상징계 내부에 기입된 상상계의 또 다른 얼굴이다. 이와 같은 실재계의 작동 메커니즘은 욕망구조의 핵심적 특성 자체이다.

특히 실재계의 작동방식이 실내건축 공간의 욕망 구조적 특성과 일치하는 지점은 공간 자체와 공간의 불가능성을 동시에 지시한다는 점에 있다. 즉, 공간의 실재계적 욕망 작동은 공간 속에서 공간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공간을 열어젖히는 움직임을 일으키는데, 이와 같은 작동방식은 공간이 지배하거나 길들일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타성(alterity)을 내포한다. 결국

33) Anthony Vidler, *The Architectural Uncanny*, MIT Press, 1992, p.217

34) *Ibid.*, p.220.

공간은 차이를 고정시키는 '구조'와 그 구조를 열어젖히는 '힘'으로 분열되어 있다. 이때 '구조'는 '공간(space)'의 의미가 발생하는 구조주의적 논의에서의 특성이고, '힘'은 공간이 공간화 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공간의 내부적 분열의 시간성에 초점을 둔 특성이다.

이런 의미에서 실내건축적 공간의 차이를 고정시키는 욕망구조의 특성과 그 구조를 열어젖히는 실제계적 특성은 서로 분리되지 않은 채로 실내건축의 구조 내부에서 실내건축적 공간을 교란시키는, 즉 공간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공간(non-space)을 반복적으로 생성해내고 있다. 이처럼 구조 내부에서 구조를 교란시켜서 형식적인 구조로 환원될 수 없게 만드는 '특이성(singularity)'은 특수성과 보편성 모두에 속하면서도 둘 중 어디에서 포섭되지 않고 서로를 오염시키는 사이공간적 특성이다.

향후 연구과제가 될 실내건축의 특이성에 대한 연구는 실내건축이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 인식론적, 경험론적 의미들을 탐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1. Anthony Vidler, *The Architectural Uncanny*, MIT Press, 1992
2. Edward T. Hall, *The Hidden Dimension*, N.Y.: Anchor Books, 1969
3. Jacques Lacan, *Écrits: A Selection*. trans. Alan Sheridan,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1977
4. Jacques Lacan, *The Seminar. Book XI: The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1964,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Norton, 1998
5. Jaques Derrida, *Positions*, trans. Alan Bas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Peter Eisenman, *Diagram Diaries*, New York: Universe, 1999
6. K. Harries, *Building and the terror of time*, *Perspecta: the Yale Architectural Journal* 19, 1982
7. Paul Virilio, *Architectutre in the Age of Its Virtual Disappearance, The Virtual Dimension*, John Beckmannes,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8
8. Rosemary Jackson, *Fantasy: The Literature of Subversion*, Routledge, 2003
9. Slavoj Zizek, *The Plague of Fantasies*, London: Verso, 1997
10. 데이비드 하비, *구동회*·박영민 역,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2000
11. 딜런 에반스, 김종주 외 역, *라캉 정신분석 사전*, 인간사랑, 1998
12. 드 기보르, 이경숙 역, *스펙터클의 사회*, 현실문화연구, 1996
13. 슬라보예 지젝, 김소연·유재희 역, *빠딱하게 보기*, 시각과 언어, 1995
14. 존 커티스 외, 김주연·서수경·이성훈 역, *실내건축의 역사*, 시공아트, 2005
15. 조이 모니스 말내 외, 박영순·이현수 역, *인테리어 디멘션*, 디자인하우스, 1996
16. 피셔 외, 이진환·홍기원·정영숙 역, *환경심리학*, 학지사, 1997
17. 권택영 엮음, 민승기·이미선·권택영 옮김, *자크 라캉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1994
18. 김상환·홍준기 엮음, *라캉의 재탄생*, 창작과 비평사, 2005
19. 문병호, 아도르노의 사회이론과 예술이론, *문학과 지성사*, 1993
20. 봉일범, *잠재성의 차원*, 시공사, 2005
21. 서동욱, *차이와 타자*, 문학과 지성사, 2003
22. 이정우, *철학이란 무엇인가*, 2003 겨울 철학아카데미 강의록
23.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소명출판, 2000
24. 정인하, *현대건축과 비표상*, 아카넷, 2006

<접수 : 2007. 7. 3>